

지역문화 구슬담론 춘천 결과보고

포럼성과

- 지역문화진흥계획 기획단(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문화분권과 협치'를 위한 정책, 실천 방안 모색하는 계기 마련
- 문화도시 추진 지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담론 형성

I 포럼개요

- 일시/장소 : '19. 11. 7.(목), 13:30~18:30 / KT&G 상상마당 춘천
- 주 제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분권과 협치
- 참여인원 : 총 123명 (사전등록79, 현장등록37, 재단7)
- 소요예산 : 금20,909,630원(금이천구백구천육백삼십원)

II 프로그램

- 진행순서 : 환영사 → 섹션별 토론(8개) → 결과공유

구 분		내 용
13:20~13:40(20)	등록 및 사전행사	* 섹션별 일반 참가자 사전 등록
		* 참여자 사진촬영 최종 결과자료집 등재
13:40~13:55(15)	환영사 (사운드 홀)	최돈선(춘천시문화재단 이사장)
		차재근(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13:55~14:10(15)	섹션별 주제 공유	사회: 권순석(문화컨설팅바라)
14:10~14:30(20)	이동, 휴식	네트워크 타임
14:30~17:20(170)	섹션별 토론	*좌장, 토론자, 토론 참석자
17:20~17:40(20)	이동, 휴식	네트워크 타임
17:40~18:40(60)	각 섹션별 결과 공유	사회: 권순석(문화컨설팅바라), 섹션별 토론사회자
18:40~	만찬	네트워크 타임

○ 섹션별 토론 주요내용

- 주제 : [1-1] 지역에서 문화의 가치 그리고 의미

1) 지역문화의 가치란?

- 지역문화는 개개인의 정체성이 모여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모여 지역문화를 이룬다고 생각함
- 공공재원이 투입된 지역문화는 결과물들이 비슷하여 지역의 정체성이 담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
- 보조금에 의존한 행사는 결국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획일화된 행사의 모습으로 연출됨
- 지역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향유자 교육도 필요함
- 지원정책에 의지하려는 생각보다는 작은 규모라도 자생력을 길러야 함
- 흔히 문화향유, 수혜자, 공급자로 나뉘는데 우리 모두가 문화에 대한 참여자라는 전제 하에서 고민을 해봐야 함

2) 행정주도의 문화행사들이 지역문화의 색채를 담고 있을까?

- 중앙(서울)으로 자본과 인력이 모이는 이유는 지역에서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고, 지역의 문화 소비계층도 얇으며, 행정 역시 좀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
- 어느 지역의 축제를 가도 다 획일적임, 타켓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을 만들다 보니 정작 누구도 즐기지 않음. 사업비가 공공의 재원이기 때문인 것도 한 이유가 됨

3) 어떠한 환경일 때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가능할까?

- 매개자교육을 통해 지역을 바꿔볼 수 있음
- 각각의 역할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주제 : [2-1] 법, 제도의 정비

1)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

- 여전히 진흥계획의 수립방식, 규정 및 사업들이 하향식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프로세스 설계를 시행령 안에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문화”라는 단어를 문화예술계로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지역과 생활을 총칭 하는 지역문화로 셋팅하고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교육 등등의 민회, 총회에서 여기에(지역문화협력위원회) 붙여서 진행하는것이 훨씬 유익하구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셋팅하고 들어가면 국가 정책사업도 연관되어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함
- 중앙정부, 문체부, 광역, 기초의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함. 중앙정부는 꼭 해야할 일을 빼고는 다 이양하고 의사결정은 기초들이 모여서 해야 함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 지역문화전문인력이 교육으로 육성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함
- 지역인재개발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공급자 중심이어서 문제임,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에서 산하기관들을 두고 있고, 각 산하기관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에 따른 공모사업을 만들어 내려 보내다 보니 지역에서는 통합적인 운영이 힘들.
- 현재 전문인력 양성은 각각의 사람들을 개인화시키고 있음 (예술강사, 생활문화 매개자, 도시재생전문인력 등) 문화전문인력 그룹을 지정해주는 방식이 열리면 지역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더라도 팀을 이루고 전문단체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음. 현재의 개별화 방식은 충분한 활동을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지속성이 떨어짐.

3)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공론장의 필요성

- 문화예술 정책 단위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지만 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재생(국토부), 혁신(행안부) 등 정부 부처의 다른 부서의 사업이 지역 안에서 통합되어 같이 가야 하는데 뭉쳐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음.
- 도시재생과 생활SOC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역, 문화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단위와 협력할지 뚜렷한 플랜이 없음. 즉 거버넌스의 파트너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거버넌스의 파트너가 지역문화협력위원회여야 한다고 생각함.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에는 지역민회, 총회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밑으로부터 추대된 시민대표, 문화대표를 포함시키고 당연적으로는 지자체 장과 의회가 들어가야 한다 정도로 제시를 하면 될 듯

4) 생활문화시설규정과 문화지구 지정

- 생활문화시설을 “시설”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안됨. 시설은 관리체계가 작동되는데 자발적, 자율적인 생활문화가 뽑히기 어려움. 시설중심서 -> 장소중심으로 단어의 전환이 법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함. “장소”로 접근을 해서 지역 안에서의 일상공간, 공유지들을 장소로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

- 주제 : [2-2]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수립 및 과정관리에 대한 프로세스와 그 로드맵

1) 계획수립의 주제문제

- 사업담당자들이 지역민들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온 것 같긴 한데, 지역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나 고민해봤으면 좋겠음,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실무진데이블도 필요할 것 같음
- 지역민들의 문화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문화공토를 활성화해야 함
-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주체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동의함, 소수의 생각을 전체 니즈로 봐도 되는가가 고민임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까지 고민하고 있을까 우려됨, 또한 ‘균형’에 대한 고민이 듬, 전국의 공동체 수준이 너무 다른데, 지자체는 그 수준을 고려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과주의로 가야하는지 궁금함
- 포괄적인 생태계구축을 통한 민간육구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음

2. 계획수립의 연계성

- 문체부를 포함하여 행안부, 국토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음, 중복사업 정리가 필요함
- 문화영향평가와 같은 상시적인 평가를 통해 성과 및 효과를 측정하여 부처 간 사업연계 가능성 모색
- 기본계획 수립 시 문체부만의 계획이 아닌 부처 간 협력계획도 함께 담겼으면 좋겠음

3. 계획의 실효성과 가능성

-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현장에서 이 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함
- 정량적평가와 정성적평가가 함께 반영된 종합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음

4. 지역문화진흥체계 협치의 구조

- 민간에게 어떻게 결정의 권한을 줄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체계들과 어떤 방식으로 연동하면서 민간의 정책역량을 끌어올릴 것인가도 중요함
- 지역문화진흥원과 기초재단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여기서 광역의 역할이 중요함

5. 포괄적 문화계획으로서의 지역문화계획

- 문체부는 문화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광역은 기초지자체들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단위 베이스를 맡아줘야 함
-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함, 또한 실행계획에 대한 중앙의 피드백이 필요함
- 어쨌든 계획의 방향보다도 중앙과 기초의 생각과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

- 주제 : [3-1] 생활문화정책 2.0

1) 생활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최근의 연구로 중년층(50-60대)들이 여가를 어떻게 즐겨야하고 찾아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결과를 얻음.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했으면 좋겠음
- 확산보다는 다양성이 중요한 거 같음. 생활문화가 동호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 보다 생각을 끌어내고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음. 은퇴하시고 자신에 대한 설계, 생활문화가 중심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
- 시대, 사회, 구조가 변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것저것 확장을 하지만 동아리 지원 사업, 동아리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중년층들이 장악해버리고, 조직화되면 그 안에서 특혜를 받아가고 이기적으로 변화함.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고민임. 원칙을 세울 수 있지만 정책은 복잡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함. 결국 세대별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관점과 태도를 바꾸는게 필요함, 중년층에게 새로운 문화로 접근해야함
- 생의 주기별, 단계별로 경직된, 현장에서 느끼는 지원구조 틀을 재구조하고 전환해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사실 고령화시대는 이미 접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이 나와야함. 연령대별로 생애주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2) 생활문화정책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 지역적일수도 있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성남의 경우에는 개별 클럽한테 지원하는 예산은 없음. 3-5개 동호회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지원예산은 시스템 예산/홍보비/음향/재료비 등
- 생활문화지원금액을 공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동아리의 분류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허점이 있다고 생각함, 생활문화정책에 대한 공청회(충분한 소통)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생활문화가 개별 활동이나 취향활동보다 그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 시대의 지향점에 대한 공감감이 있었으면 함. 전환하고 시대정신을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등. 현재 생활문화정책은 위에서 셋팅해서 내려오는 방식이라 한계적임. 지역의 여러 버전들을 계속해서 담론화하고 그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생활문화정책으로 인해서 개인이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고 행복한지에 대한 것들은 사업을 짜거나 정책을 고려할 때 크게 고민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 같음. 개개인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생활문화정책에 들어갔으면 함. 동아리 자체에 어떤 것을 지원하느냐에 문제지 동아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동아리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권장하고 활성화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교육 중심으로 위에서 내리 쏘는 방식으로 갔던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함.

- 주제 : [3-2] 지역 예술생태계

1) 지역생태계와 관련한 질문과 답변

- 4가지 관점에서 이야기 진행 (예술창작 및 향유의 기회 확대 / 예술인이 지역 정주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가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구현, 특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예술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종합적 의제로 토론을 진행하면 어떨지
- 지원사업은 참여의 공정성보장이 안 됨.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함. 전업 예술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향이 큼. 개인적 지원 뿐 아니라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지원은 계속 확대되는데 예술의 질과 창작의 질은 왜 떨어지는가?
- 복지제도가 정말 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인가? 오히려 공유공간/ 공유지를 지원하는 게 효과적 / 전시장 대관 같은 경우 그것은 시민을 위한 것인지 예술가를 위한 것은 아님 / 직접지원 방식보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서 생각해야 함
- 예술가복지 영역에서 창작공간 지원은 정말 필요 / 창작공간, 스튜디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복지가 맞아 / 창작지원금 제도는 과연 예술가를 열심히 살게 하는 제도인가 하는 의문
- 작가 창작활동에 대한 소비시장이 부재 / 공공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같은 제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지만 그럼으로 인해 예술창작 외 다른 활동들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 예술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 사회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
- 그렇다면 예술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무엇인지? 1) 예술가 교류 2) 공간 지원 3) 소비시장 확대, 공유지는 예술인거점공간으로 표현될 수 있음
- 현 정책은 사회적 가치도 계량화 하는 상황 / 예술생태계를 모두 아우르는 형태로 모두 어우러져야 함 / 거버넌스 필요 / 지역에 기반 한 예술가, 공간, 단체 지지를 받아야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음
- 직접지원방식으로 진행 필요. 계량화/간접지원방식도 중요하지만 예산/사업비 처내기 바쁜 상황 / 간접지원방식은 소홀한 상황 / 계량이긴 하지만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의 다양화 필요 / 생태계 네트워킹, 새로운 공간을 발견하는 노력, 목적사업과 직접사업의 다변화 간접지원 방식과 생태계를 살리는 방법으로 고민 필요
- 지역에서 예술가들을 지지-신뢰해 보는 경험 중요/ 기관이 그것을 기획해 본 적이 없거나 예술인 존재 자체가 없는 지역은 코디네이터 발굴 및 양성이 필 예술인들이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스킬을 익혔으면 좋겠음

- 주제 : [3-3] 지역사회와 사회적 자본

1) 지역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의제 제안

- 예술가의 행정들이 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전문인력, 문화안전망 세대 간의 가치, 문화재단이 해야 할 가치까지 지역문화진흥원, 공공기관, 문화연합회,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음
- 공공과 민간 균형이 중요, 아무리 중앙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임
- 문화재단이라는 역할에 대해서 고민이 드는 시점.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하며 가치로는 좋지만 재단에서 문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은 단기적임. 전문가의 조직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와 성과도출임.
-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조례방안을 고민해봐야 함. 문화재단의 각각의 역할은 사회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 자체 사회적 문화가 어렵고, 지역 여건이 어렵고, 지역 전문 인력에 대해 이야기였음

2) 문화안전망 구축에 대한 의제 제안

-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합의된 언어로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 지표를 만

들자는 것이 아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

- 지표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 목표, 생활예술을 가지고 가는 분들의 개인적 역량을 국고 예산으로 통해 자발성을 유도, 생활문화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생활예술로서 받아드릴 준비가 되는가, 다양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잘 구축하고 있는가? 안전망이 문화안전망이 맞나? 사회자본의 중요한 강점이 아닌가?

3)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제 제안

- 문화기획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은 많은데, 자리가 없음. 기초 문화재단들이 기업에 연계해서 어떻게 발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스러움
- 사회자본이라는 역할을 규명할 때 지역 내에서 뭔가를 삶의 형태, 삶을 살아가는 것, 떠나지 않고 자립하는 것. 사회적 자본이 한정적으로 가다보니 그런 점이 쉽지 않음. 역할이 대조적으로 느껴짐
- 지역에 인력이나, 공공베이스, 흔히 재단이나 중간 지원조직은 행정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서 활동하기에 지역 관점이 다를 수 있음. 공공이 가지고 있는 형식상에서 주어지는 신뢰, 공정성 실제 공공이 그렇게 하지를 않음. 생존가능한 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에 지역은 계속 소비성이 되어감. 흥SNS도 없었고, 인터넷 기반도 없었기에 아날로그 시절에 소위 장소성이라는 것이 높게 생각했음. 사회적 신뢰, 사회적 관계망, 지역 문화, 생활문화, 자기 결정권이나 토대가 약하기에 결국 공공이 맺어줘야 함.

- 주제 : [3-4] 장소기반의 문화정책

1) 현재의 문제점과 바라는 점

-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경기상상캠퍼스 모델링해서 운영중. 공적자금이 투입되다 보니 예산이 보통 1년 단위. 잘못되었을 때 예산이 끊기면서 1회성에 그침.
- 매년 예산에 대한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압박감이 문제라고 생각함
- 익산문화재단 근무시 예술의 거리 담당을 했었는데 공간으로 봤을 때 문화예술거리의 붐 현상이 있었음,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거리의 모습을 더디더라도 스케치해가고 그 안에서 협의체도 만들며 재단이나 지자체가 뒤에서 서포팅을 하는 모습으로 가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는데 막상 예산이 들어올 때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게 됨. 또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그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감, 지역 주민들을 그 지역의 인력으로 쓰기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그 사업에 투입하면서 진행하고 빠지는 대행 모습이 결국 주민들을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장소기반 공간사회의 문화정책이 첫 번째, 지속가능한 현지보존이 가능해야함. 두 번째, 지역기반의 살아있는 콘텐츠가 필요. 세 번째, 우리가 기획자랍시고 지역주민을 무대를 만들어두고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세우려고 함. 주민들을 주인공이 아닌 주인으로써 참여하도록 해야 함. 또, 주민들과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지역이나 주민의 손으로 직접 넘어가 솔루션 해결을 해야 함. 문화공간, 유희공간이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주제 : [4-1]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지역문화(자율제안)

1) 개인과 공공

- 공공영역에서만 문화예술을 고민, 어느샌가 개인이 사라져 감, 암묵적인 희생 강요
- 국가나 공동체는 집단성을 요구, 생활문화에 방향성은 공동체가 맞는 것일까? 욕망, 무분별한 지원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당연한 욕망으로 작용

2) 지역이 원하는 지역문화

- 주민참여예산 주체가 주민이 아님, 쓰고 싶은 곳으로 예산 뿌려지는 형태
- 문화예산은 항상 한정되어 있고 지역은 항상 목마름,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를 요구, 시민들 입장에서 지역문화는 차별 금지, 자본주의적 맥락이 아닌 고른 나눔의 원칙, 기회의 공정성이 지역문화의 요구, Rule을 정하는 주체의 변경,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을 잘 수행하는 단체가 아닌 주체 스스로 판단해서 룰을 정해야 함

3) 공론장을 통한 시민성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공론 형성의 장이 있다면 중요함, 개인의 욕망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 그것이 합의될 수 있는 방법 찾기
- 시간이 부족함, 실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음, 설득시키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함

○ **섹션별 토론 결과(의제 도출)**

토론주제	의 제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역사, 자원이 고려되지 않는 프로그램(획일화된 지역문화프로그램) · 고립이 아닌 자립의 문화 · 행정의 분절된 정책운영에 따른 이어지지 않는 맥락 · 문화자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 공공과 민간의 적정거리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 생활문화시설의 규정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공론장의 필요성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의 주체 문제 · 계획수립의 연계성 · 계획의 실효성과 가능성 · 지역문화진흥체계 협치의 구조 · 포괄적 문화계획으로서의 지역문화 계획-문화위원회, 문화도시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생활문화 정책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한 지원과 실험이 충분한가 · 예술인 생태계가 안정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인식 확산을 위한 공공의 역할 · 서로 언어가 다른 ‘관-지역-예술인’ 3차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코디네이터 같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자본의 실효성을 진단하는 체계, 특히 사회적 가치로의 정성지표 ·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는 지역문화의 새로운 자원지형 모색 필요 · 지속가능 경영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구조에 대한 지수를 높이는 장치 ·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효과 전환에 주목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과 실행방법의 자율성을 극대화한 사례 적극 발굴 · 생활권 장소기반사업의 평가방법 자체 전환 · 마을단위, 생활권 공간기반사업의 정량평가기간 확대 · 문화 생활권 도시 사업에서의 관광측면 평가 제도 개선 필요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과 공공 · 지역이 원하는 지역문화

Ⅲ 홍보내역

○ 홍보내역

구 분	구 분		인 원	비 고
공문	전국 기초문화재단		67개	전지현 협조
공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완주복합문화지구, 강원문화재단		5개	
문자	사전신청자 대상 85명		85개	
온라인 포스팅	사전홍보	문화도시춘천FB, 춘천시문화재단FB, 춘천문화FB	3개	
	리뷰	문화도시춘천FB, 춘천시문화재단FB, 춘천문화FB	3개	
합 계			163개	

○ 언론보도

구 분	게재일시	제 목
강원일보	'19.11.11	춘천시문화재단 KT&G상상마당서 지역문화구슬담론 포럼
강원도민일보	'19.11.08	문화다원주의 실현, 사업 주체간 소통 중요
강원도민일보	'19.11.07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지역현장 목소리 담기 위한 구슬담론 개최